

밀크플레이션 현실화 되나... 유가공제품·커피음료 줄인상

흰우유 가격 평균 6~8% 인상
서울우유 생크림·버터도 올라
이디야커피 가격 인상 예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유유 가판대에서 한 직원이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17일부터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제과류와 커피 메뉴 등 다른 식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국내 주요 유제품 기업들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가격을 평균 6~8% 인상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3일 원유 기본 가격을 1L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49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유 가격 인상은 지난 2020년 8월 낙농진흥회가 21원 인상을 결정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1000ml 기준 흰 우유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710원에서 2800원 후반대로 책정됐다.

흰 우유 외에 유제품 가격도 올랐다. 서울우유는 서울우유 생크림과 버터 가격을 각각 10%, 7%씩 인상했으며 발효

유 제품 '비요프' 출고가가 5%대로 인상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일부 치즈 제품 출고가를 약 20% 올린 바 있다. 매일유업도 원유 가격 결정 전인 지난달 이미 발효유 제품 가격을 15~25% 올렸고, 휘핑크림 가격이 6~7% 인상했다.

hy(옛 한국아쿠르트)는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발효유 제품 가격을 올린다

고 17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의 소비자 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6.7% 오른다. '메치니코프'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7.7% 비싸진다. 인상된 가격은 유통 채널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hy는 지난 9월 1일에도 '아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200원에서 220원으로 10% 올렸고 '쿠퍼스 프리미엄', '아쿠

르트프리미엄 라이트', '멀티비타프로 바이오틱스'의 가격을 100~2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나 버터, 치즈를 재료로 하는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잇따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과업체와 커피업체는 유제품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 가격이 1L당 21원 오르자 스타벅스는 올초 카페라떼 가격을 400원(9.8%) 인상했다. 파리바게뜨도 연초에 빵·케이크 등 6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7% 올렸다.

이에 따라 특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인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 씨(45)는 "우유나 크림 등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일부 커피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두 가격도 오르고 우유 가격도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유 가격뿐 아니라 설탕, 원부자재 가격

과 물류 비용 모든 비용이 오르는 상황이라 가격을 올려도 순이익이 예전보다 좋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우유의 카페 전용 우유인 '밀크마스터' 가격이 6.3%가량 인상된다. 다만 인상 시기는 유통 채널별 협의가 필요해 이날이 아닌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진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 B 씨(32)는 "올초에 가격을 올렸는데 또 올리면 손님들이 반감을 가질까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당초에 조금 더 큰 폭으로 금액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군우유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우유를 대신할까 고민도 했지만, 손님들의 입맛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단골 손님들마저 잃을 수 있어 관둬야겠다"고 덧붙였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는 다음 주부터 직영점을 대상으로 4년 만의 가격 인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음료 57종에 한해 200~700원 가격을 인상한 뒤 올해 안에 전국 가맹점으로 인상한 가격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수험표 버리지마세요... 오늘부터 할인티켓”

롯데월드, 30~50% 할인 제공
CGV, 할인된 영화 관람 쿠폰

2023대학수학능력시험 후 한껏 여유를 즐길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외식부터 영화/공연, 여행, 가전까지 수험표만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수험표와 수시모집 합격증을 지참하지만 하면 된다.

새내기 대학생이 되며 필요한 PC 등 가전상품 할인 판매도 있다. 전자랜드는 2002~2004년생 대상으로 17일부터

‘응답하라 0204’ 휴대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험표를 제출하면 노트북 행사모델 구매시 최대 10% 즉시 할인해준다. 온라인 쇼핑물에선 행사 중인 간편결제로 노트북 구매시 최대 10만~25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마트는 30일까지 롯데하이마트 앱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수험생이자 하이마트/L-POINT 정회원인 고객에게 추천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1만원권을 증정한다. 롯데월드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이

드벤처, 아쿠아리움·전망대, 어드벤처 부산, 워터파크 등에서 30~50% 할인을 제공한다. 에버랜드는 연말까지 자유이용권 가격을 최대 52% 할인해준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와 메가박스스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수험생과 청소년에게 저렴한 가격에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대표소에서 수험표 및 학생증(청소년증)을 제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영화 관람 쿠폰을 다운받으면 2D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연말까지 열리는 5개 공연을 40% 할인한다. /신원선·김서현 기자 seoh@



신경성 JW중외제약 대표(왼쪽)와 방용영 에스엔이바이오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동 JW중외제약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W중외제약, 에스엔이바이오와 SI 계약

〈전략적 투자〉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지분 보유

JW중외제약은 바이오 벤처기업 에스엔이바이오와 전략적 투자(SI)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JW중외제약은 20억원을 투자해 에스엔이바이오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취득, 지분 5.1%를 보유하게 됐다. 또한 신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스엔이바이오는 2019년 삼성서울

병원 신경과 방용영 교수가 설립한 기업으로 마이크로RNA(miRNA)를 탑재한 줄기세포 기반 엑소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엑소솜은 세포와 세포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차세대 약물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스엔이바이오는 줄기세포 고유 특이인 혈관·신경 재생 등에 유익한 물질을 손상된 부위에 전달해 뇌졸중과 같은 난치성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 연구에 경쟁력이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바사, 국제백신연구소에 30억 전달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 모색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백신 리더로서 백신 연구개발(R&D)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다음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IVI에 백신 R&D, 장비 및 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금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기부금의 형태로 IVI 한국후원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IVI는 글로벌 공중 보건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가까이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IVI의 접합백신 생산기술을 적용해 장티푸스 백신인 '스카이타이포이드멀티주(이하 스카이타이포이드)' 개발에 성공했다.

스카이타이포이드는 네팔에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3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으며, 향후 WHO PQ 인증을 획득하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역시 IVI와 협력의 결과물이다.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IVI와 협력해 글로벌 임상 수행 및 분석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美 자회사 큐레보 시리즈A 350억 추가 유치

GC녹십자는 미국 자회사 큐레보가 올해 2월 진행한 시리즈A 펀딩(총 6000만달러 규모)에 이어 추가로 총 2600만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투자 유치한 총 금액은 약 1150억원에 달한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RA 캐피탈 매니지먼트, 어쥬먼트 캐피탈과 GC녹십자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큐레보는 현재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상포진 백신 'CRV-101'의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임상 개시 6개월 만에 678명의 환자 등록을 모두 완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간 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RV-101'은 최적의 면역반응을 내도록 설계된 서브유닛 백신이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4 | 해질 / 17:19

11월

18일 (금)

음력 : 10월 25일

수도권 날씨

6 ~ 17°C

-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